

광주지역 유통업계 “일회용품 줄여라”

광주지역 유통업계가 ‘비닐·플라스틱 감축’ 캠페인을 펼치며 친환경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커피전문점도 개인 컵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을 주고 있으며, 아예 플라스틱 컵을 제공하지 않는 등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데 앞장서고 있다.

20일 광주지역 이마트에 따르면 비닐플라스틱 사용량을 50%까지 감축시키겠다는 본사의 지침에 동참하고 있다.

비닐플라스틱은 ‘벌크(Bulk)’ 상태의 과일이나 채소, 휴이나 수분을 함유한 상품들을 담은 비닐팩이다.

이마트는 향후 톨백을 최소화하는 한편 대형 톨백(35x45cm)을 줄이고, 소형 톨백(30x40cm) 비중을 늘리는 방식으로 사용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상품 포장재와 포장방식도 순차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행사상품의 추가 비닐포장을 줄이고 재활용할 수 없는 코팅·유색 트레이(회집시 등)를 줄여나가는 등 재활용 촉진을 위한 캠페인에도 앞장설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비닐쇼핑백 대신 사용하던 종이쇼핑백마저 없애고 부직포 재질의 대여용장바구니(보증금 500원)를 운영하고 있다. 종이 사용 절감을 위해 ‘모바일 영수증’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등과 일회용품 줄이기 업무 협약을 맺고, 화용품 줄이기 대국민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협력사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일회용품 줄이기에 관한 협력 사항을 계약에 반영하고, 자체(PB) 상품은 패키지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등 기획, 개발 과정에서부터 환



이마트는 비닐쇼핑백 대신 부직포 재질의 대여용 장바구니를 사용,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동참하고 있다.

일회용품 줄이기 캠페인 친환경정책 동참 비닐·종이쇼핑백 대신 장바구니 대여 모바일 영수증 발급, 개인컵 할인 추진

경과 재활용을 고려한 프로세스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커피전문점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카페 프랜차이즈업체가 텀블러 등 개인 컵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거나 아예 플라스틱 컵을 제공하지 않는 등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데 앞장서고 있다.

스타벅스는 텀블러 등 개인 컵을 소

지한 소비자에게 300원을 할인해주고 있다. 이외에 일회용 컵 수거함 설치, 전자영수증 발급 등 자원 재활용을 위한 다양한 연중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투스텀플레이스도 개인 텀블러 등 사용자 300원 할인제공을 기본으로, 매장에서 아이스음료를 마실 경우 머그컵이나 종이컵에 담아준다. 이외에도 엔제리너스 400원, 카페메네 300원 등 카페 프

랜차이즈 업체들이 개인 컵 사용자들에게 가격할인혜택을 주고 있다.

홈쇼핑도 포장의 변화를 줬다. CJ오쇼핑은 올해 친환경 포장을 위해 포장용 ‘OPP 비닐 테이프’를 종이 재질 테이프로 변경하고, 부직포 행거 의류 포장재를 종이 행거 박스로 대체하기로 했다. 또 비닐 에어캡(뽀박) 대신 완충재를 사용하기로 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이마트는 친환경 실천을 위한 새로운 캠페인을 제안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향후 자원절약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비닐 사용량 감축 및 플라스틱 재활용 촉진 캠페인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나라 기자

중소기업 인도시장 개척방안 모색

중기부 광주전남청·KOTRA 공동세미나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지방청(청장 김진형)이 지역 중소기업 인도시장 개척방안을 놓고 기업관계자와 전문가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지방청은 26일 광주·전남 KOTRA 지원단(단장 최동석)과 공동으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인도 진출 관심기업을 대상으로 세미나·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해외 시장에 진출하려는 중소기업에 높은 성장률을 주목받는 인도 시장을 소개하고 마케팅 전략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지역 중소기업의 인도 수출금액은 5,000만 불에 해당된다. 뿐만 아니라 13억 인구와 매년 7%이상 GDP가 성장하는 국가 우리의 수출 다변화를 위해 중요한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인도시장개척의 노하우 전수를 위해 전문가 초청 세미나도 마련했다.

이준규 전 주인도대사는 2010년 한-인도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발효

이후 소비 규모와 성장 잠재력 부분에서 중국 대체 시장으로 급성장 하고 있는 인도 시장 진출과 관련된 “한국과 인도 관계의 미래”에 대해 설명했다.

30여년 간 인도 무역지원 전문업체 ㈜BTN을 운영하고 있는 김용기 대표는 “현지 유통시장 동향, LED 조명?의료기기 등 고부가가치 틈새제품 비즈니스 전략 등 인도시장개척 노하우”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중기부 김진형 광주전남청장은 “인도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바이어 성향, 거래 관습 등 현지시장에 대한 세부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다”며 “이번 세미나가 인도 지역에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정보 제공의 기회가 되기를 희망하며, 우리 지역 수출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미나와 간담회에 참여하기 원하는 기업은 광주전남청 수출지원센터(062-360-9194) 및 광주전남 KOTRA 지원단(062-360-9052)로 문의하면 된다.

/이나라 기자

빛가람 스타트업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오창렬·이하 ‘진흥원’)은 오는 29일까지 소프트웨어(SW)와 정보통신기술(ICT)분야 창업 활성화를 위한 ‘빛가람 스타트업 프로그램’에 참가할 교육생을 모집한다.

‘빛가람 스타트업’은 창업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팀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 성공적인 창업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이다. 광주와 전남이 공동으로 추진 중인 에너지신산업 SW융합클러스터 사업 중 기술형 창업생태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교육은 ‘실무형 창업교육’과 ‘집중형 창업지원 교육’ 두 과정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우수 수료생에게는 ▲시제품 제작비 지원 ▲홍보물 제작비 지원 ▲지식재산권 취득 비용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다. 신청을 원하는 자는 진흥원 홈페이지(www.jcia.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soulmate3134@jcia.or.kr)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ICT 전략사업팀(061-339-6945)로 문의하면 안내가 가능하다. /이나라 기자

현대·기아차-아우디 수소전기차 개발 ‘맞손’

‘수소차 연료전지 기술 파트너십’ 체결

현대자동차그룹이 세계 1위 자동차업체인 독일 폭스바겐그룹과 수소전기차 기술 개발에서 협업한다.

현대차그룹은 20일 현대·기아자동차와 폭스바겐그룹의 아우디가 각 그룹을 대표해 수소전기차 관련 연료전지 기술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수소전기차 기술 개발을 놓고 글로벌 자동차제조사 간에 합종연횡이 이뤄지는 가운데 현대차그룹은 폭스바겐과 손을 잡는 것이다.

현대차 제너럴모터스(GM)와 합작법인을 설립해 수소전기차에 탑재되는 연료전지 시스템을 공동 생산하기로 하고, 도요타는 BMW와 함께 2020년 상용화를 목표로 수소전기차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 닛산과 포드-다임러 역시 제휴 관계를 맺고 있다.

현대·기아차와 아우디는 이번 협약에서 수소전기차 기술의 확산과 시장 활성화를 위해 특허와 주요 부품을 공유하고, 수소전기차 시장 선점과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해 앞으로 기술 협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정희선 현대차 부회장은 “현대차그룹은 전 지구적 환경 문제, 에너지 수급 불안, 자원 고갈 등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수소’ 에너지의 가능성에 일찍부터 관심을 기울여 왔다”고 말했다. 이어 “아우디와의 파트너십은 글로벌 수소전기차 시장의 활성화는 물론 수소연관산업 발전을 통한 혁신적 산업 생태계 조성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피터 메르텐스 아우디 기술개발 총괄은 “수소전기차는 전동화 기반의 차장 중

가장 진화된 형태로, 잠재력이 큰 미래 친환경 기술 분야”라며 “현대차그룹과 같은 강력한 파트너와의 협업은 수소차 분야의 기술 혁신을 위한 현명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사의 이번 파트너십은 수소전기차의 보급 확대, 수익성 강화를 모색 중인 현대차그룹과, 수소차 양산 모델 개발을 서두르고 있는 아우디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수소전기차는 짧은 충전시간, 긴 주행거리뿐 아니라 공기정화 기능까지 갖춘 미래형 친환경차”라며 “이번 파트너십 체결을 시작으로 향후 더 폭넓은 형태의 기술 협업관계를 구축해 미래 수소전기차 시장에서의 선도적 입지를 더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서미애 기자

광주전남무역포럼 ‘성료’

KITA-광주전남기협 공동주관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KITA·본부장 주동필)는 광주전남기업협의회(회장 장준상)와 공동으로 20일 광주 라마다플라자 호텔에서 ‘창의적 전략의 신-승리를 만드는 7가지 조건’이란 주제로 ‘제4회 KITA 광주전남무역포럼’을 가졌다.

이날 포럼에는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기업협의회 회장 등 유관기관장들을 비롯한 약 130명의 지역 수출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광주전남기업협의회 회장 장준상은 인사말을 통해 “4회를 맞은 광주전남무역포럼이 지역 수출기업인들의 만남의 장으로 자리매김해 매우 기쁘다”며 “글로벌 경쟁시대에 어떤 전략으로 우리 지역 기업들이 승리할 수 있을지 해법이 공유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광주전남기업협의회와 공동으로 20일 광주 라마다플라자 호텔에서 ‘제4회 KITA 광주전남무역포럼’을 가졌다.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강사로 나선 송병락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창의적 전략의 신-승리를 만드는 7가지 조건’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송 교수는 “어릴 때부터 극심한 차별을 받고 26세에 중병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

은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을 일으켜 세운 것이 손자병법이다”며 “손자병법을 비롯한 동서고금 전략서의 7가지 조건을 통해 광주전남지역 수출기업 CEO들이 전략의 신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이나라 기자




좋은 콜레스테롤 올려주고 나쁜 콜레스테롤 내려주는

활성형 모나콜린K!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모나콜린K의 힘

홍국쌀 발효과정에서 분비되는 신비의 붉은 빛 물질 모나콜린K가 혈관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을 청소하고 혈관 청소를 돕는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을 유지시킵니다.

기능 및 성분 함량 (1일 1캡슐 기준)

모나콜린K 6mg

마그네슘 91mg (부원료)
미늘동결건조분말 100mg (부원료)



www.vitamin-house.com / 1588-8529 비타민하우스 가맹약국 건강기능식품 코너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